



◇22일 시작된 한국불교 꽃예술회의 봉축꽃꽂이전.



◇천성철씨의 탄생도(부분).



◇부처님일대기 주제전에 출품된 허길홍씨의 '열반상'.

# 봉축 문화행사 '다채롭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문화 행사들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이미 22일 한국불교 꽃예술회의 봉축 꽃꽂이 전시회가 서울 명동의 로얄호텔에서 양기로운 막을 올렸다. 28일부터는 동국불교미술인회가 '부처님의 일생'을 주제로 하는 회원 작품전을 동경아트센터에서 5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서울지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문화행사 가운데서는 손재현무용단의 창단 공연작 '넋의 소리'가 주목되고 있다. 6월3일부터 6일까지 6회에 걸쳐 동국대문화예술관에서 공연될 '넋의 소리'는 에밀레 종의 주조와정에 얽힌 설화를 내용 꾸며진 발레와 불교설화의 만남이다. 발레와 연극적인 요소, 탈춤이 혼합된 '넋의 소리'는 6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될 계획이어서 새롭게 시도된 불교무용의 세계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열리는 제3회 동국문화예술제도 볼만한 봉축문화행사. 5월 6일 오후7시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이 예술제는 국립극단관현악단장 박범훈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법현스님(동국대국악과 강사)이 법과작법을 시연하는 '영축산의 환희'와 안숙선 명창의 '보림' 가락과 문화예대학원생들의 연주가 어우러질

## 꽃꽂이로 ... 그림으로 무용으로 ... 음악으로 부처님오신날 '찬란'

'어울림의 극치', 김영임의 회상곡등이 불만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다. 청소년교화연합회의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일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부처님그리기대회, 불교교육원의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등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 서울불교청년회의 제11회연꽃노래잔치, 파라미타와 전국교법사단이 5월9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도 불자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잔치마당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5월 2일 모래조각전과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는 양정청소년회관에서 불교영화 상영된다. 부산지역 봉축문화행사는 대중들 속으로 다가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 15일은 하루종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교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대법정부산지구의 거리찬반

가, 보현회의 화춤, 무비이무용단의 무용공연 등이 부산역 광장 무대에서 열리며 인근 문화관에서는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시낭송회도 열린다. 불교미술작가회와 복구사상구사임연합회가 미술전과 서예전을 6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각각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불교문화원과 부산불교교육원은 5월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아와 토우전과 미술전시회를 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5월6일부터 10일까지 꽃꽂이전을 20일까지는 우리차 시음 전시회를 통도사부산포교원, 육천사문화다도회등과 함께 마련한다.

대구지역에서는 5월 15일 동화사가 통일대불 앞에서 경축음악회를 대구모교로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제7회 대구 경북 불교합창제가 문화예술관 대강당에서,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의 제6회 찬불가경연대회는 5월 20일 대덕문화전당에서 각각 열린다.

광주지역에서는 5월2일 대법정광주지구가 원효사에서 여는 봉축백일장을 시작으로 문화행사가 막을 올린다. 눈길을 끄는 행사로는 광주불교교육원이 5월 9일 무등산 중심사에서 여는 어린이그림대회, 또 광주지역 봉축위가 초대전으로 여는 고현수 교수의 불교회화 초대전은 5월 24일부터 6월6일까지 남봉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문태 기자(yilm@buddhapia.com)

### ◇전국 봉축문화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부처님일대기 주제전	4.28~5.4	공경아트센터	동국불교미술인회
부모은공충수행목공예품전	4.30~5.1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관현악단
제11회 연꽃노래잔치	5.2~5.11	웅진갤러리	유학장연구원
부처님그리기대회	5.5	동국대중앙당	서울불교청년회
소년소녀합창·무용공연	5.6	봉은사	불광·목아불교박물관
동국대문화예술제	5.6	국립중앙극장	불교교육연구원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5.9	동국대문화예술관	동국대문화예술관
부처님그리기대회	5.15~22	조계사	파라미타·교법사회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30	조계사	불교청년연합회
넋의 소리	6.3~6.4	동국대문화예술관	청소년교화연합회
전통춤 전시회	6.3~6.4	국립중앙극장	손재현무용단
불교영화 상영	6.3~6.4	국립중앙극장	전통무용연구회
미술전	6.3~6.4	국립중앙극장	양정청소년회관
서예전	6.3~6.4	국립중앙극장	불교미술작가전
꽃꽂이전	6.3~6.4	국립중앙극장	불교미술작가전
도자·공예전	5.7~5.20	부석상화미술관	한마음선원부산지원
거리 찬불가공연	5.15	대법정부산지구	통도사부산포교원
시 낭송회	5.15	부산역광장	천마재합창
무용공연	5.15	부산역광장	대법정 부산지구
사물놀이	5.16	부산역광장	부산불교문인협
이외포우 설치전	5.17~5.23	범사사 경내	부산불교교육원
이외미술 전시회	5.17~5.23	범사사 일주문	부산불교교육원
산사음악회	5.15	동화사문화다도회	동화사·대구IBC
제6회 찬불가경연대회	5.20	대덕문화전당	대구광역시신도회
제7회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5.11	문화예술회관	불교음악인협회
봉축 백일장	5.2	원효사	대법정광주지구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5.9	중심사	광주불교교육원
불교회화전	5.24~6.6	남봉미술관	광주시암연

# 운주사 문화재 보수 오히려 훼손 '눈살'

천불천탑의 신비로운 설화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운공, 사적 제312호)의 상징인 석불과 석탑들이 행정당국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면서 서로 맞지 않는 석재를 쓰거나 시멘트로 발라버려 되레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운주사의 보물 제797호 석불감생배불좌상의 경우 팔각 지붕과 감실의 양쪽벽이 파손되자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해 이를 보수하면서 재질이 관이하게 다른 석재로 맞춰 끼워넣고 철근조각으로 균형을 잡는 등 상식을 무시한 보수를 해 놓았다.

또 대웅전 뒤에 있는 원형다층석탑도 기울어진 부분을 철조각으로 끼워넣어 돌이 별개게 흘러내려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바로 옆의 좌불석들은 깨어진 머리부분과 코·귀 등을 시멘트로 발라버려 무지한 문화재보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운주사측은 "운주사가 사적지로 지정돼 문화재 보수는 대부분 화순군청의 '제안'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 감독' 순으로 실시되는 것이 관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보수 작업이 시작돼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이 없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또 화순군 관계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순천 금둔사 통일신라대 창건" 순천대박물관 수막새등 유물 발굴

순천 금둔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구층이 새롭게 발견됐다.

금둔사는 경내에 조성된 석불입상(보물 946호)과 삼층석탑(보물 945호)만으로 통일신라 사찰로 추정될 뿐, 기록이 없어 학계에서도 창건 연대를 알지 못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조원래)은 최근 금둔사 지층 120~150cm에서 창건 당시 건물지 지층을 발견, 발굴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유구층에서 4동의 건물지를 확인했고, 초석·기단·연화문 수막새·주름문늪 등 유물을 발굴했다. 또 박물관측은 발굴유물을 토대로 금둔사는 9세기경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했다는 것.

최인선교수(순천대 사학과)는 "전남지역 초기 불교유적의 문양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유화로 그린 수월관음도

상목스님 '비구 상목전' ... 5월 서울·부산 전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어떤 맛으로 다가올까.

전통불화에서나 만날 수 있을 주제를 서양화의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상목스님(하동 지동사주지), 최근 2년간 작업한 결실들을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한다. 서울전시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백상기념관, 부산전시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부산롯데호텔.

스님의 그림들은 재료의 특성과 화려해진 내용들로 각종 짐승들과 자연, 불보살상, 탑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스님의 캔버스 속에서 '빙긋이 웃는 여유'를 전해준다. (02)724-2236



◇심베로 짠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상목스님의 '대지대비 관세음'.

## 불화사랑회의 불화 대중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대구시민회관 전시실

전통불화를 배우며 신심과 예심을 다져 온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화복에 탄생한 불보살님들을 선보인다. 대구 불화사랑회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불화사랑회를 지도해 온 예산스님의 작품 17점과 회원작품 12점이 선보인다. 예산스님은 전통불화의 정도를 가르치지만 스스로의 작품세계는 상당히 현대적 안목으로 구축하고 있다.

예산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불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누구나 불화를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화대중화 운동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0545)976-7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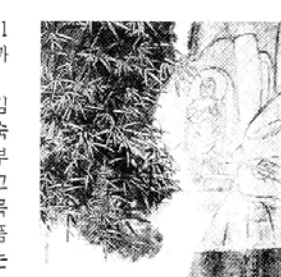
◇예산스님의 '만다라'.

## 수묵-전각-동양화 '하모니'

퇴차회 21회 작품전 29일부터 관훈동 백악예원

퇴차회가 결성 10년을 맞은 올해 21회 전시회를 갖는다. 29일부터 5월5일까지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

이번 전시회에는 조항숙, 이은숙, 김영숙, 이승만씨 등이 출품했다. 조항숙씨는 서정성 짙은 수묵과 부처바위, 부처님의 출가장면 등을 더러 섬세하고 더러는 대담한 필치로 조화시키는 수묵의 덕 번짐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작품들을 내 놓았다. 김영숙씨와 이은숙씨는 전통 한옥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추억담을 화폭 가득 담았다. (02)923-5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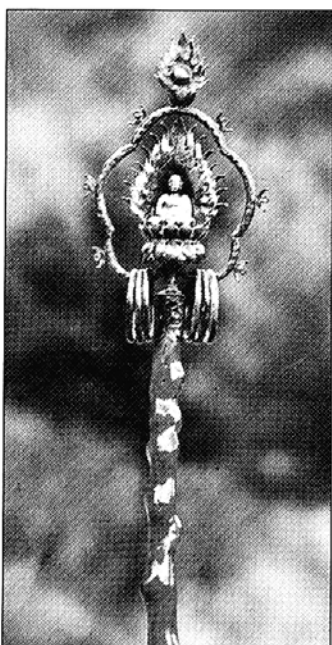


◇제21회 퇴차전에 출품한 조항숙씨의 작품.

# 육환장 소리 딸그렁 딸그렁 ... 시방세계 꽃이 피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전통 수행목공예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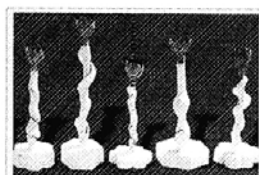
무수수의 세존 그 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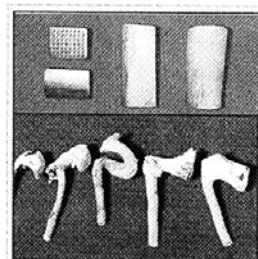
■육환장 구세구난, 법계의 상징물,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제작. 108개 한정제작해 법의 상징으로 함. 머리부분은 청동제로 장엄하고 몸체는 자연목 그대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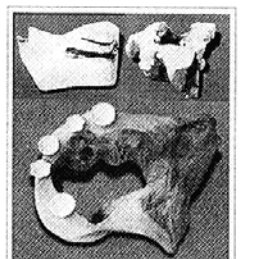
■솔향꽃이 :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진목(5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 20년쯤 되면 솔향꽃이 필)으로 만든 솔향꽃이. 이는 천연향이 살균제 공기청정제로 여변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모미와 제철무늬의 향기가 천연세월 화결함을 준다.



■연화축대 : 옥각형(연화) 받침대에 용대를 세우고 연꽃으로 장엄하여 '연화축대'를 만들었는데, 세상이든 재할 특이며, 常樂我淨이 대光明임을 자각하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목침 종양치 : 잠을 편히 자도록 도와주고 목의 어혈을 풀어주는데 목침이 좋으며 종양치는 자연 그대로라서 오래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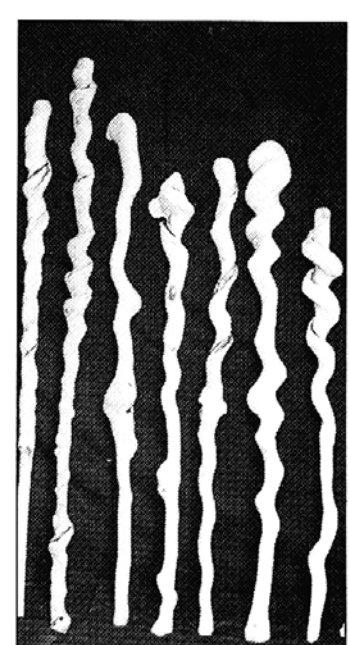
■원목 침상·침자받침 : 100년 이상 고목의 나무껍질과 곡섬미를 최대한 살려 만들었다. 수백년 계곡의 자연 고사목을 채취해 다듬었다.

♣모시는 글 불 보살의 명호는 나무를 붙여서 부른다. 「귀의한다」는 나무(南)시 태어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셨다. 숲에서 안기 교화했고,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승가의 원형이 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살매를 길게하고 활력을 불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방을 목재로 짓는 등 사찰엔 목공예가 특히 발달했다.

오늘날 승가는 전통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불사는 수행의 차원을 떠나 상품화 되었고, 수입과 무관심으로 원형을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오막새의 지구촌, 세계一花를 위해 한국불교의 맥을 세우고 유행정진할 때이다. 본 작품들은 백두대간 나무만을 엄선하여 자연 그대로 手作業했다. 20년 절집 생활이 담겼다. 이 작은 시작으로 세계가 영산회상화 되길 기원드립니다.

- 육환장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

- 일시 : 1999년 5월 2일(일)~ 11일(화)
- 장소 : 용진갤러리 (조계사에서 인국동 방향 100m 734-3851)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육환장 연구원(0584-653-6780)
- 후원 : 4·8불국위원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주장자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특수건조해 휘거나 썩을지 않음.